

조선족 농촌주거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변화 연구

- 중국 길림성 조선족자치주 용정시 용산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Korean-chinese's Rural Houses for the Modernization Process

- Focused on the Longshan Village, a County of Korean-Chinese in JiLinSheng, China-

김 준 봉*
Kim, June-Bong

이 해 대**
Lee, Hea-Dae

김 정 태***
Kim, Jeong Tai

Abstract

Ever since China declared it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policies in the late 1970s, it has been under rapid change.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China's history and society was in progress at a pace far too fast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nd housing sector was no excep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houses showing enough changes of modernization process in the rural area, and with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field survey data conducted respectively in the present decade, considered the architectural elements and changing aspects of housing lifestyle. This paper will explore ① The changes and the status of the members of the village, ② The changes and the status of the structures, ③ The changes and the status of the main areas of housing, ④ The changes and the status of the heating system and the kitchen that crucially affects the space size among the housing facilities, and ⑤ The changes and the status of the bathroom.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will firstly look at how traditional rural houses has been changed under the modernization process, and will objectively evaluate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traditional rural houses so that it will help find a way of improving China's rural houses in the future.

키워드 : 농촌주택, 근대화, 물리적 요소, 유형화

Keyword : Rural Housing, Modernization, Physical factor, Classific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 선언이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의 역사와 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주택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써, 근대화 과정의 변화 단계를 비교적 충분히 보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택들을 대상으로 건축적 요소들과 주생활 양상을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함이며, 특히 조선족 농촌주거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주거문화 및 생활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조선족 마을의 재래식 농촌주택이 근대화 과정을 거

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알아본 후, 주택의 변화 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는 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주택의 물리적 요소 및 인문사회적 환경의 현황과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물리적 요소라 함은 주택의 모든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구조체, 건축면적, 각종 설비 등의 요소를 말하며, 인문사회적 환경이란 마을의 인구, 생활상, 환경조건 등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 및 조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단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문화는 사회적, 지리적, 민족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조선족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이주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출발점을 가진 문화이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지리적 조건에서 형성된 문화의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현 주거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 북경공업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kimjunebong@daum.net)

** 북경공업대학교 건축도시계획학원 석사과정(lhdjg@naver.com)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jtkim@khu.ac.kr)

있다.¹⁾ 최근 조선족의 주거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족 살림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2000년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설공학부 재직 당시에 조사 연구한 조선족 집단거주 마을을 대상으로 약 10년의 기간을 두고 2010년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²⁾, 중국 동북지역의 순수 조선족 마을의 주거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양식이 중국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고, 그러한 변화양상의 체계를 정리해 두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의 지역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중국의 연변 조선족자치주 용정시 용산촌이다. 연구대상 마을은 중국 연길시에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용정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행정적으로 동북 3성 중,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자치주 용정시 동성용진에 속하며, 길림성 동남부 장백산 동측, 두만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용산촌 전경사진

용산촌은 용산1대 마을부터 용산5대 마을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 용산2대와 3대 마을의 모든 주택이 이번 연구의 대상지이다.

2) 연구내용의 범위

본 연구는 마을의 인문사회적 배경 및 조건과 주택을 구성하는 물리적 기본요소를 조사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구조체, 부엌, 난방,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각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마을 구성원의 현황 및 변화, 구조체의 현황 및 변화, 주택의 안채 면적의 현황 및 변화, 주택 설비 중 평면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엌,

난방방식의 현황 및 변화, 화장실의 현황 및 변화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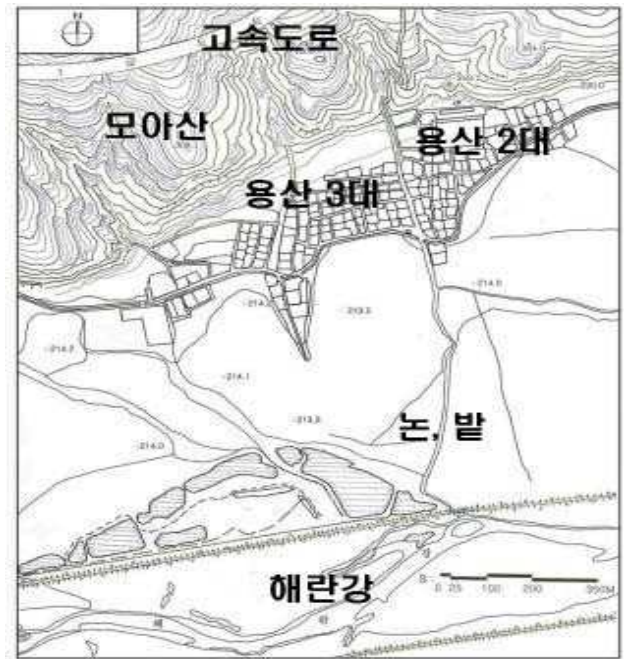


그림 2. 용산촌 위치도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포괄적인 범위를 담게 되는데, 이는 마을 형성 초기의 재래식 전통주택부터 최근에 건축된 현대적 주택까지의 변화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자 함이다.

2000년 조사당시의 자료상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수는 총 159채였으나, 2010년 재조사 때에는 이 중에서 마을 내 도로정비 사업으로 없어지거나, 빈집인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러 쓰러진 주택이 14채였고, 조사를 거부한 주택이 9채였다. 그 외에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19개 주택을 제외하여, 본 연구는 총 123개의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연구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연구 대상지역의 인문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이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 및 조사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을 가려낼 수 있었다.

둘째, 대상지역의 주택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과정이다. 실측, 관찰, 촬영 등에 의하여 각 주택의 물리적 현황을 채취한 후, 평면도와 배치도 등 도면화 작업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각 주택에서의 면담을 통하여 주택조사표 및 인문조사표를 작성함으로써, 주택의 물리적 요소, 공간구성과 실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 및 비 일상생활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셋째, 2000년도 조사당시의 과거자료와 2010년도의 현재 자료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변화양상을 찾아본 후, 유형화 작업을 통하여 근대화 과정을 유추하였다.

1) 金俊峰, 『中國朝鮮族民居』, 中國民族出版社, 2007年, pp30-33
 2) 용산촌에 대한 초기 조사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연변과학기술대학 주거환경연구소의 현지답사를 통해 수차례 실시되었다.
 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0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북경공업대학교 도시주거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넷째, 주택 근대화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의 틀을 마련하고자 조사대상지역 전체의 주택을 4가지의 주택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건축시기, 구조체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하였으며 『흙벽초가형』, 『흙벽기와형』, 『벽돌벽기와재래형』, 『벽돌벽기와개량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연구 방법상 중요한 틀을 제공하며 연구분석에 있어서 보다 쉬운 접근을 가능케 한다.

넷째, 각 요소 및 조건들의 변화과정은 주택유형화와 변화시기에 따라 해당 주택 수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각 항목별로 유효응답에 대한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요소 및 조건들이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요인을 유추하고, 주택유형에 따른 물리적 요소의 변화에 대해 해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통계적 처리 과정을 통하여 종합분석이 이루어지며, 근대화 과정 전체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다.

2. 조사대상지의 10년간의 변화양상

본 단락에서는 용산촌에 대하여 2000년도에 실시된 조사자료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0년도에 실시된 조사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비교적 큰 틀에서 확인을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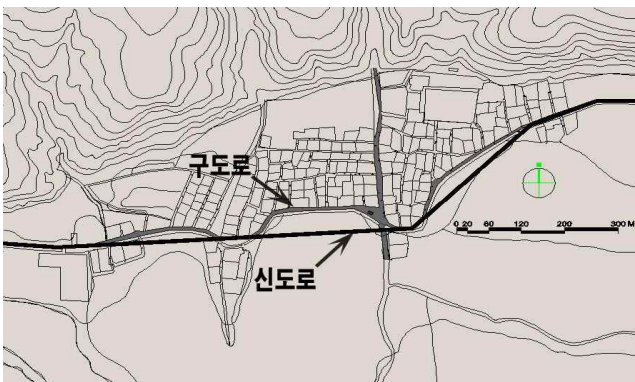


그림 3. 조사대상 마을의 배치도

마을의 배치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주도로의 변화이다. 마을 형성 당시의 구불구불한 구도로(회색)에서 농촌마을의 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곧게 직선으로 뻗은 신도로(검은색)가 한눈에 들어온다.

2.1 인문사회적 측면

먼저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2000년도에 390명에 달했던 마을의 인구가 2010년도 조사에 의하면 약 1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와 세계화에 따라 중국 내 대도시는 물론이고 최근 조선족의 활발한 한국진출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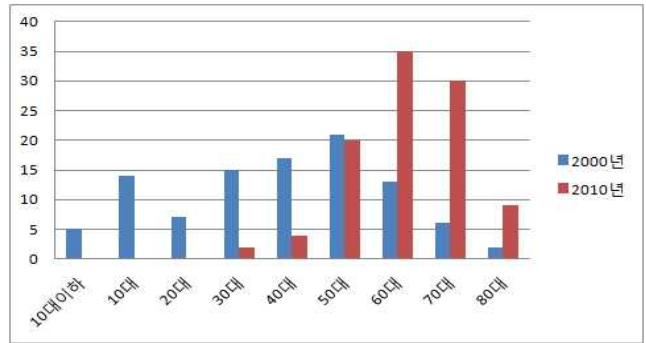


그림 4. 조사대상지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비교(%)

마을의 연령대별 인구분포도를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는 10대 이하의 어린아이부터 80대의 노인층까지 고르게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2010년도의 인구분포에서는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전무한 상황이며, 60대와 70대의 노인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평균 나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 42.4세에서 2010년도 65.3세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0년도에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소학교가 2010년 현재 폐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은층의 인구유출 심화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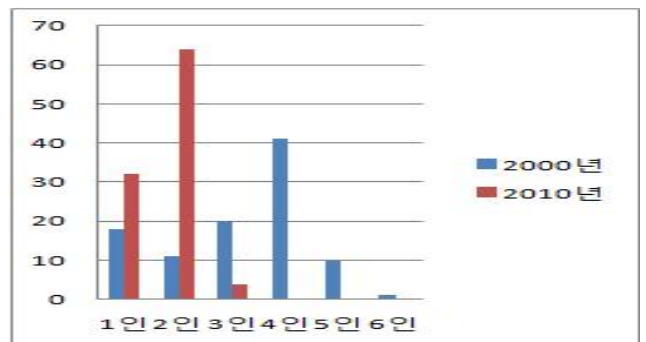


그림 5. 조사대상지의 가구당 가족수 비교(%)

또한 가구당 가족수 현황을 나타낸 도표를 보면, 2000년도에 1인가족부터 5인가족까지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6인의 대가족도 1가구 존재하였던 반면, 2010년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1인가족부터 3인가족까지만 찾아볼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3인가족도 불과 4%에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2 건축적 측면

1) 구조재료

건축적 측면에서 변화가 가장 쉽게 눈에 띄는 부분은 구조와 재료적인 부분이다. 먼저 주택의 뼈대에 해당하는 구조형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2000년도 조사 당시의 주택들 중 목구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54%, 조적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였는데 반해, 2010년도 조사에서는

목구조 45%, 조적조 55%로써 비율의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0년동안 주택의 신축에 대한 요구가 상당수 있었고, 그에 대하여 조적조 구조의 주택이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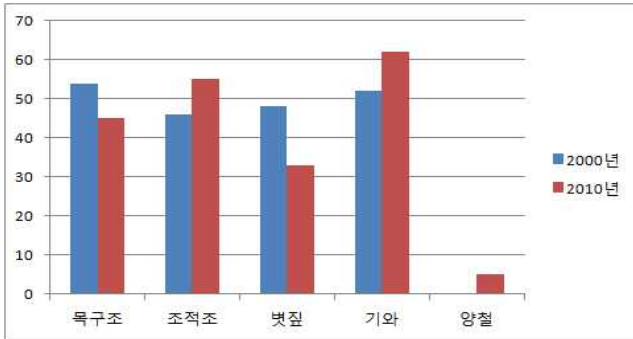


그림 6. 조사대상지 주택들의 건축구조 및 지붕재료 비교(%)

비슷한 맥락으로써 구조형식 만큼이나 변화양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지붕이다. 지붕 재료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2000년도 마을의 주택들이 볏짚 48%, 기와 52%였는데 반해, 2010년도의 주택들은 볏짚이 33%, 기와 62%, 양철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서 나무와 흙에서 벽돌로, 볏짚에서 기와, 양철로 변해가는 주택 구조와 지붕재료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난방과 부엌

주택의 설비는 생활의 변화와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여 주택의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는 주택의 근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난방 방식과 부엌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① 난방 방식

조사 대상지의 주택들은 전부 아궁이에 불을 지피 취사를 하면서 그 열기를 구들에 축열하는 전통 바닥 난방을 하고 있어 난방과 취사는 겸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들인 만큼 좌식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간혹 침대가 있는 경우도 현대식 생활에 대한 욕구로 장만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래식 주택은 물론이고 현대식 주택에 이르기까지 난방 방식은 모두 전통 온돌 난방이었으며, 그 흔한 전기장판조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지은 주택들도 전통 온돌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마감 부분만 현대식으로 처리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주민들이 온돌 난방에서 뛰어난 효과를 얻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난방형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방방식에 있어서 변화형태를 한가지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재료에 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한 재료로써 나무와 볏짚 등이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전통재료라 한다면, 보다 근대적 재료인 석탄을 사용하는 주택도 찾아볼 수 있

었다. 하지만 그 수 역시 전체 주택의 11%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으며, 이 주택들에서조차 주 사용재료는 나무와 볏짚 등이었고 석탄의 사용은 매우 적었다.



a) 전통형 주택(러범철씨 댁) b) 현대형 주택(박승화씨 댁)

그림 7. 조사대상지 난방방식의 실례

② 부엌

부엌은 보통 주택 설비의 근대화 과정 중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 중의 하나이다. 본 단락에서는 부엌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단계를 설정하여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표 1. 부엌형태의 유형 분류

	취사행위 방식	내부수도 위치	취사설비	바닥마감 재료	비율 (%)
재래식	허리굽혀 작업	바닥	부뚜막	시멘트, 타일	92
개량입식	입식혼용	썩크대	부뚜막, 전기,가스	시멘트, 타일	3

각 단계를 설정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사작업이므로 부엌에서 일어나는 취사작업을 중심으로 하여 취사작업의 입식화 정도와 부엌 내에 수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래식, 개량입식의 2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우선 연변 지역 조선족 주거의 평면상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방, 정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정지³⁾는 연변 조선족 주거의 가장 특징적인 공간이면서 중심적인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정지는 통상적으로 부엌의 공간까지 합쳐서 통칭하며, 기본적으로 구들, 가마솥⁴⁾, 부스꺼⁵⁾로 구성된다. 여기서 한가지 변화한 점은 부스꺼 위를 개폐식 마

3) 연변 지역의 조선족 주거에서는 대부분 단란, 식사, 취사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침의 기능 분화에 의한 벽체를 두지 않고 취사공간과 온돌공간으로 영역의 분화만 이루어진 이러한 공간을 '정지'라고 통칭한다.

4) 가마솥이 걸려있는 부뚜막을 가리킨다.

5)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공간을 가리킨다.

루널인 장관⁶⁾으로 덮은 것이다. 장관을 덮음으로써 부스개 공간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취사작업시 바탕으로 내려가야 하는 동선상의 불편을 해소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2000년도부터 2010년도에 이르기까지 조사대상지의 모든 주택에서 변함이 없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재래식 부엌형태와 개량입식 부엌형태 모두 취사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서 하게 되고 취사설비로는 주로 가마를 사용하게 된다. 전기밥솥이나 가스레인지 등을 구비해놓은 가구도 다수 있었으나, 그 사용 횟수는 매우 적었다.



a) 재래식(김용주씨 덕) b) 개량입식(박승화씨 덕)

그림 8. 조사대상지 부엌분류의 실례

수도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용수원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쓰고 있었으며, 2000년도 까지만 해도 펌프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주택에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주택의 내부로 수도가 들어와 있었다. 다만, 재래식 부엌은 정지 한 칸 바닥에 간이 개수대를 설치하여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개량입식 부엌은 싱크대를 설치하여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엌의 형태는 근대화 과정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어 있는 온돌 난방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화장실

부엌과 더불어 주택 설비의 근대화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으로 화장실을 꼽을 수 있다. 현대식의 실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데, 조사 대상지 주택들의 화장실은 전부 재래식이였다. 주택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최근에 현대식으로 지어진 주택들은 주택 내부에 화장실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외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6) 일부에서는 ‘널판’이나 ‘마루’라고도 부르는데, 연변에서는 ‘장판’으로 호칭한다. 두께 50mm, 폭 200mm 정도 규격의 판자를 여러 장 사용하여 쉽게 들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 재래식 실외변소 b) 현대식 실내 화장실

그림 9. 최철역씨 덕의 실내·외 화장실

이에 가장 큰 이유는 마을에 하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수시설이 없으므로 배수가 용이하지 않고 실내에 악취가 나는 등의 불편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지의 모든 주택들은 마당에 묻어둔 독에서 자연 침수시키는 형태의 하수 처리방식을 쓰고 있었으며, 이렇게 실내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은 오로지 세면실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 외에 세면실이 없는 주택에서는 정지의 수도에서 세면을 하는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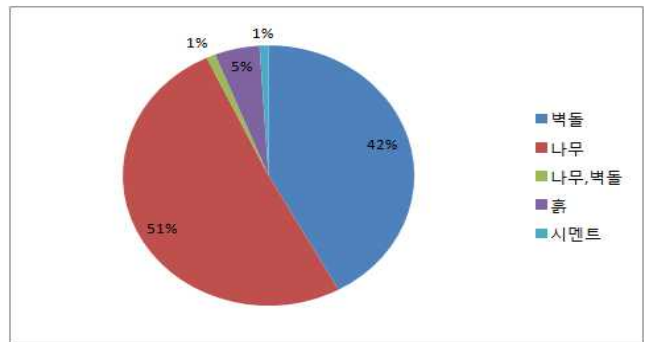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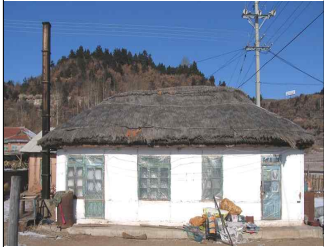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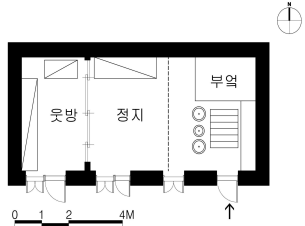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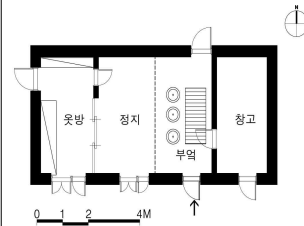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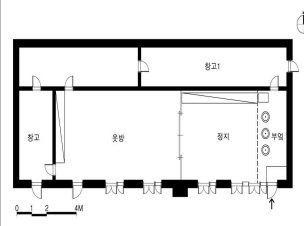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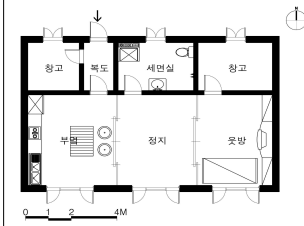


그림 10. 조사대상지 주택들의 화장실 구조재료(%)

실외 화장실의 재료로는 나무가 51%, 벽돌 42%, 흙 5% 등으로 고루 쓰이고 있었다. 사용 재료로 나무와 벽돌이 비슷하게 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무로 만들어진 화장실이 과반수 이상인 이유는 벽돌 화장실의 구조가 견고한 반면에 나무 화장실보다 냄새가 잘 안 빠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화장실은 개량이 거의 없이 재래식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설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화장실이 실내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인습적인 거부감 내지는 선입관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지며, 농촌 생활에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부적합하여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써 주택 근대화 과정에서 기억할 만한 사항이다.

표 2. 조사대상지 주택분류의 실례

	a) 흙벽초가형 주택 (방홍철씨 택)	b) 흙벽기와형 주택 (리상호씨 택)	c)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 (김해송씨 택)	d)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 (주용선씨 택)
외관				
평면				

3. 주택변화의 유형화

지금까지 조사대상지에 대한 2000년도와 2010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10년사이의 눈에 띄만한 변화양상을 찾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화 과정에 따른 변화모습을 유형화하여 자세히 분석하면,

조사대상지역의 주택들은 구조, 평면, 배치 등의 요인에서 여러 가지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70년대의 개혁·개방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의 주택들은 완전한 재래식의 전통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근대식 주택의 형식 및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혁·개방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주택은 『전통형 농촌주택』으로, 그 이후의 주택은 『현대형 농촌주택』으로 구분하였다. 『전통형 농촌주택』과 『현대형 농촌주택』은 구조체의 특성에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형 농촌주택』은 골조는 나무로 하고 벽은 흙으로 축조한 목구조로써 목조 흙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두 흙집과 겹집이 혼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현대형 농촌주택』은 벽돌을 쌓아 만든 벽돌 조적조이며 겹집의 형태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전통형 농촌주택』은 다시 구조체에 따라, 지붕으로 벗짚을 엮은 『흙벽초가형』과 기와를 엮은 『흙벽기와형』으로 분류된다. 『흙벽초가형』 주택은 목구조에 지붕재료로써 벗짚을 사용한 전형적인 전통적 형식인 반면에, 『흙벽기와형』 주택은 전통적 윤곽은 유지되면서 재료에 의한 구조체의 변형이 생긴 것으로, 기존 『흙벽초가형』 주택의 목구조 형식에 지붕재료를 기와로 대체한 형태이다. 『현대형 농촌주택』도 개혁·개방 직후에 건축된 『벽돌벽기와재래형』과 그 이후 현대식 주택에 더욱 가깝게 변형된 『벽돌벽기와개량형』이라는 두 가지 주택유형으로 구분된

다.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과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은 조적조이고 지붕은 기와를 엮는 등 구조적으로는 같은 형식이지만,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은 실내에 위치한 화장실, 급수 및 배수설비가 입식으로 적용된 부엌 등 평면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에 비해 더욱 현대식 주택에 가까우며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과 분명히 구분된다.

즉, 『흙벽기와형』 주택은 『흙벽초가형』 주택의 변형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과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은 구조체적인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주택이다. 또한,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은 『전통형 농촌주택』이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이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

앞의 네 가지 주택유형은 건축시기에 따라 『흙벽초가형』 - 『흙벽기와형』 - 『벽돌벽기와재래형』 - 『벽돌벽기와개량형』의 순서로 연결되며, 분명한 시간대상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11>은 조사대상지의 주택들을 구조체의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서 보면 『흙벽초가형』 주택이 193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건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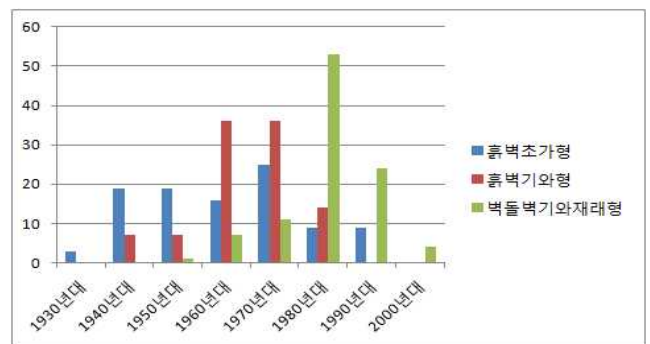


그림 11. 조사대상지 시기별 주택분류(%)

대상지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농촌의 특성상 경제적 상황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을 테고, 성능을 다한 주택의 신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흙, 나무, 볏짚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림 11>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 중 2000년대의 주택과 1990년대의 일부 주택이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진다. 조사대상 주택 중에 『전통형 농촌주택』은 45%, 그리고 『현대형 농촌주택』은 55%로써 약 반으로 나뉜다.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흙벽초가형』 주택은 33%이고, 『흙벽기와형』 주택은 12%이며,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은 52%,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은 3%로 나타났다. 4가지의 주택유형 중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개혁·개방 직후부터 주택의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주택유형화는 이 지역 주택에 대한 근대화 과정의 단계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 큰 기여를 한다. 동시에 발생시기가 연속되는 각 유형의 주택들은 하나의 연결성을 가진 흐름을 보여준다. 유형화 단계 자체가 근대화 과정의 발전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유형화 작업의 의미와 중요성이 드러난다. 유형화 이후의 작업은 각 단계에서의 물리적 변화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4. 물리적 현황 및 변화의 분석

이 절에서는 주택을 구성하는 건축요소 중 가시적으로 기본이 되는 물리적 요소로서 구조체, 면적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각 물리적 요소들의 현황 및 변화된 사항을 주택유형 및 시기적 구분에 따라 조사, 분석하여 주택유형간의 연관성 및 주택변화과정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4.1 구조체

구조체의 변화는 주택이 변화해 온 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구조체의 변화와 주택 개념 자체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형 농촌주택』과 『현대형 농촌주택』의 구별은 우선적으로 구조체 변화에 기인된다. 구조체의 변화는 크게 재래식 건축과 근대식 건축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증개축 부분에 대한 변화사항 추가하였다.

1) 원구조체

원구조체를 각 주택의 구조형식 및 건축 시기와 연관시켜 본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구조체가 건축시기에 따라 전통적인 목구조에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조적조로 급격히 발전되는데, 조적조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목구조형식의 수요가 적지만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농촌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근대식 주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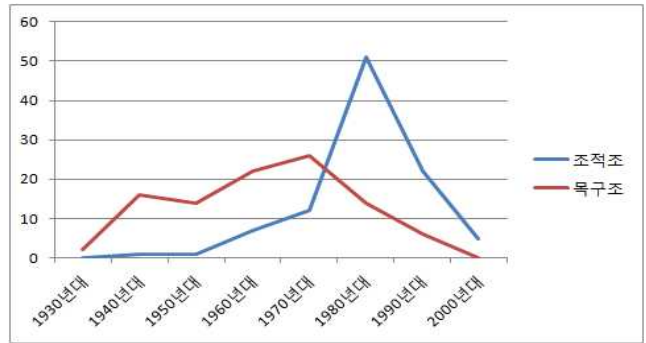


그림 12. 조사대상지 주택구조형식의 시기별 현황(%)

이러한 구조체 형식의 변화는 앞에서 분류한 주택유형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그보다 시기가 빠른 『흙벽초가형』과 『흙벽기와형』은 목구조이고, 그보다 시기가 늦은 『벽돌벽기와재래형』, D형은 조적조로 확연히 구분된다. 『흙벽초가형』, 『흙벽기와형』에서 『벽돌벽기와재래형』, 『벽돌벽기와개량형』으로 주택유형이 바뀌면서 구조체가 목구조에서 조적조로 바뀌었으나, 평면을 이루는 방법이나 공간구성 등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근대식 농촌주택이 벽돌조로 지어지면서부터 재래식 농촌주택의 개방적 성격이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2) 증개축부분 구조체

건축시기가 오래 경과할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 내 각 공간의 증개축이 요구된다. 주택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유형의 주택에서 증개축은 필요할 것이다. 주택유형에 따른 증개축 상황을 알아보면, 건축시기가 오래된 편에 속하는 『흙벽초가형』과 『흙벽기와형』에 해당하는 주택은 거주자가 증개축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장 변화가 두드러지는 지붕재료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흙벽기와형』은 기본적으로 『흙벽초가형』 주택에서 지붕만 새로 올린 형태로써의 증개축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13>과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적조 주택은 기와지붕을 얹고 있으며 목구조 주택은 볏짚지붕을 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흙벽초가형(2000년도) b) 흙벽기와형(2010년도)

그림 13. 한수길씨 댁 주택의 지붕 개량

그런데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시기에 벗짚지붕 형태의 주택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기와지붕 형태의 주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내용을 수치화 해보면, 재래식 주택에서 최소 42%이상이 증개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건축시기가 『흙벽초가형』, 『흙벽기와형』에 비해 늦은 『벽돌벽기와재래형』과 『벽돌벽기와개량형』은 조사 결과 증개축을 한 주택이 8%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만큼 재래식 생활방식에 따라 지어진 『흙벽초가형』과 『흙벽기와형』의 주택에 대한 증개축의 요구가 컸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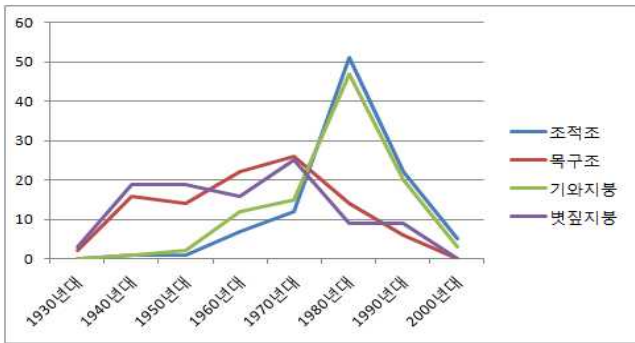


그림 14. 조사대상지 주택구조 및 재료의 시기별 현황(%)

증개축된 부분의 구조체는 원구조체와 같은 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 증개축한 주택의 16%이며,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 증개축한 주택의 84%였다. 목구조 주택의 증개축 재료는 대부분 원구조체가 아닌 재료로 바뀌는데 그것은 증개축 시점에 이르러 나무나 흙 등이 더 이상 뛰어난 구조체 재료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연한 현상이다. 그 외에, 다른 재료에 의한 증개축 사례는 목구조 주택을 조적조 주택이 대체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써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구조 재료상의 변화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목구조에서 벽돌 조적조로 정착되는 과정 및 벗짚지붕에서 기와지붕으로의 변화 과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재료상의 변화는 주택 근대화 과정의 가장 근원적 요인의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2 면적증가

각 주택에는 방, 정지, 부엌 등이 있는 안채와 농기구들을 저장하는 부속채로 분리된다. 안채를 중심으로 한 주거 면적에 대해 고찰해 보면, 『전통형 농촌주택』은 약 52m²였고, 『현대형 농촌주택』은 약 80m²로써 거주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진것을 알 수 있다.

면적과 관련하여 주택의 거주 공간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주택 평면상의 공간을 종방향으로 분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홑집형과 겹집형으로 구분하여 분류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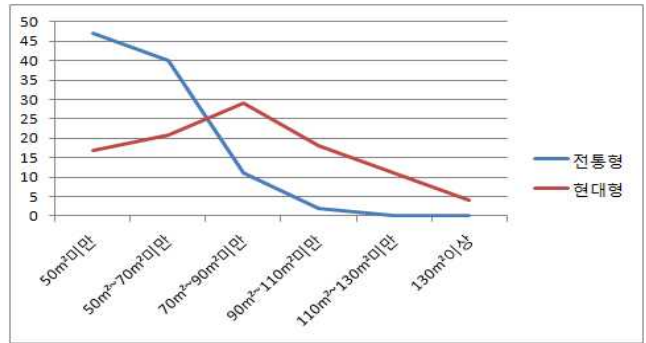


그림 15. 조사대상지 주택의 유형별 건축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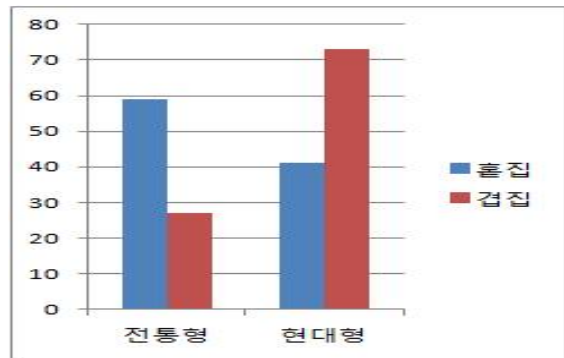


그림 16. 조사대상지 주택의 유형별 공간분할 형식(%)

그 결과, 『흙벽초가형』과 『흙벽기와형』 주택은 홑집 59%, 겹집 41%로 비슷한 반면, 『벽돌벽기와재래형』과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은 홑집 27%, 겹집 73%로 겹집이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택의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에서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중국 농촌마을에 대한 경제력 변화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⁷⁾

5. 결론

이제까지 알아본 주택유형에 근거하여 물리적 요소들의 주된 경향을 정리하면 <표5>과 같다. 이를 주택의 물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구조체는 『흙벽초가형』 주택의 목구조에서 『흙벽기와형』 주택, 『벽돌벽기와재래형』 주택, 『벽돌벽기와개량형』 주택의 조적조로 발전한다. 지붕재료의 경우, 『흙벽초가형』 주택에서 벗짚이 사용되고 그 이후의 주택에선 기와가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체의 변화가 주택의 근대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② 주택 안채의 면적은 『전통형 농촌주택』은 50m²미만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90m²미만이었으며, 『현대형 농촌주택』은 70m²이상 90m²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거주공간의 분화형식으로 살펴보면, 『전통형 농촌주택』에서는 홑집과 겹집의 숫자가 비슷했던 반면에 『현

7)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써, 주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간의 용적을 줄여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칸막이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표 3. 조사대상지의 주택 유형에 따른 종합적인 변화 경향

		흙벽초가형	흙벽기와형	벽돌벽기와재래형	벽돌벽기와개량형
구조체	원구조체	목구조		조적조	
	지붕재료	벼짚	기와		
면적	면적분포	- 50m ² 미만이 가장 많음 - 대부분이 90m ² 미만		- 70m ² 이상 90m ² 미만이 가장 많음 - 골고루 분포	
	공간분화형식	홀집:59%, 겹집:41%		홀집:27%, 겹집:73%	
난방방식		전통온돌			
부엌		재래식		개량입식	
부엌과 난방방식의 상관관계		- 전통 바닥 난방 방식으로 취사도 겸용. - 정지라는 한 공간에서 취사와 난방이 모두 이루어짐.			
화장실		- 재래식 실외 화장실 - 정지에서 세면		- 실내 화장실 (세면실 용도) - 실외 화장실 사용	

대형 농촌주택』에서는 겹집의 숫자가 2배이상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주택 근대화와 면적의 증가는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다.

③ 모든 주택에서 전통 바닥 난방 방식인 온돌난방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난방과 동시에 취사작업도 겸용하게 되며, 정지라는 한 공간에서 취사와 난방에 관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현대식 난방과 취사에 대한 진화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④ 화장실의 개량도 부엌과 마찬가지로 많이 진척되지 못했다. 『벽돌벽기와개량형』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내 화장실조차도 하수시설 미비로 세면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며, 모든 주택이 재래식 실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주택유형에 따른 물리적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근대화 과정에 따른 변화는 재래식 농촌주택이 건축시기가 오래 되어 전통형 주택의 지붕재료가 벼짚에서 기와로 변하고, 근대식 농촌주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조체가 목구조에서 조적조로 바뀌었으며, 거주공간의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주택의 규모도 비교적 커지는 등 주택의 물리적 요소가 많이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난방방식과 부엌, 그리고 화장실 등의 요소는 재래식 농촌주택과 근대식 농촌주택간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부분은 거주자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으로써 도시와는 달리 농촌생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까지 언급한 중국의 연길지방 조선족 농촌의 근대화에 따른 주택유형의 변화는, ‘외부적 요인은 현대화를 수용해가고 있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부적인 요인은 전통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농촌 주택의 근대화 과정의 흐름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온 것이며, 본 연구가 앞으로의 변화과정에 있어서도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1-0001031).

참고문헌

1. 김준봉, 『중국 속 한국 전통민가』, 초판, 청흥, 2005
2. 리신호, 김준봉, 『동북지역 농촌의 조선민족 살림집의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4권, 10호, 2002
3. 임금화, 김태영, 최효승, 『중국 연길시 근교 농촌주택의 변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권, 19호, 2005
4. 김성우, 김준봉 외 2인,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민가의 형식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7호, 2000
5. 김인학, 장태현, 『중국 조선족 촌락의 공간구조 변화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1권, 1호, 2003
6. 김성우 외 2인, 『경기도 지방의 재래식 농촌주택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호, 1995
7. 김준봉, 『중국 동북지역 한인동포(조선족) 전통민가 평면의 분류와 특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8. 강정호, 『중국 길림성 소수민족의 주거공간 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9. 임금화, 『중국 연길시 근교 농촌마을의 공간특성과 주거형태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0. 金玄松, 『關於中國朝鮮族農村住宅的特性及空間配置的研究』, 北京工業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11. 金俊峰, 『中國朝鮮族民居』, 中國民族出版社, 2007년12월

투고(접수)일자: 2011년 11월 4일
수정일자: 2012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2월 3일